

1.

핀지랩은 마이크로네시아 환초 섬 중 하나였다. 섬에 가게 된 건 방송 외주제작사 피디로 있는 선배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러 갔다가 갑자기 결정된 일이었다. 공무원 시험이 끝나고 할 일 없이 빈둥대던 나는 고시원 방값이라도 벌어들일 요량으로 선배를 찾아갔었다. 광주에서 분식집을 하며 힘들게 사는 엄마에게 더는 짐이 될 수 없어 내린 결정이기도 했다. 대학 때 천체 사진 동아리 선배였던 그와는 막역한 사이였다. 동향 출신에다 피차 서울에 친인척 하나 없는 처지라 통하는 데가 많았었는데 졸업 후엔 각자 사느라 바빠 소원해진 사이였다. 선배는 갑작스런 내 전화에도 흔쾌히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요즘도 천체 사진 찍어?”

아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찍히기 아까운 실력인데 사진 일 해보지 그래.”

“몇 군데에 이력서를 넣어 봤는데 번번이 시력에서 걸려.”

“이번에 운 좋았어. 마침 기독교 방송국에서 발주 받은 프로그램 촬영에 들어가려던 차라 영상 보조 스텝이 필요했거든.”

선배가 A4용지를 내밀었다. 계약 일시와 보수가 적힌 서류였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선배가 말을 이었다.

“나도 이번 서류 끝나면 다른 데로 옮겨볼까 생각 중이야.”

서명한 용지를 선배에게 건넸다. 그는 서류를 계약직 사원 파일 철에 끼워 넣었다.

“계약일은 다음 주부터네 내일부터 나와라. 제작 일정이 빠듯해서 말이야. 입찰가는 정해져 있는데 일정이 늘어지면 제작비 부담이 커지거든.”

“저야 뭐, 상관없어요.”

“여권 있지?”

네,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가 일어나 파일을 철제 캐비닛에 넣고는 책상에서 잡지 한 권을 가져왔다.

“촬영지가 국내가 아니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이야.”

“태평양까지?”

“핀지랩인데 원주민 중 십 프로가 전색맹이래.”

선배가 내민 잡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다. 표지 사진을 검지로 짚으며 콧에서 천구백 킬로 떨어진 곳이라고 했다. 높이 솟은 야자수와 바다, 배에 탄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었다. 책장을 넘겨봤다. 목차에 ‘핀지랩, 색맹의 섬’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기독교 방송에서 발주 받은 다크라며? 색맹을 다룰 거면 과학 쪽 아닌가?”

“원주민들 모두 기독교로 개종했대. 제작방향은 그쪽 실무자하고 맞춰 봐야지.”

2.

폰페이 공항에 도착했을 땐 팔, 다리가 후들거려 별에 달궈진 콘크리트 바닥이라도 드러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무덥고 습한 열대의 공기가 살갗에 들러붙었다. 핀지랩 섬으로 가기 위해선 폰페이에서 경비행기로 갈아타야만 했다. 서울에서 콧으로, 콧에서 장비를 챙겨 폰페이까지 가는 것만도 고역이었다. 영세한 외주업체다 보니 다크 제작팀이라야 선배와 나

둘뿐이었다. 말이 좋아 보조 스탭이지 서울에서부터 촬영 도구와 영상 장비를 챙기고, 온갖 잔심부름까지 도맡아야 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초로의 동양인 남자가 회사명이 적힌 B4용지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고 마중을 나온 한인 교회 목사였다. 목사가 옆에 선 백인 여자를 소개했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미국인 선교사라며 섬까지 동행할 거라고 했다. 폰페이 선교 본부에서 온 그녀의 이름은 헬레나였다. 선배 말에 의하면 폰페이주는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연안의 선교 중심지였다. 반듯하고 정갈한 옷매무새, 메마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 입과 눈가에 까마귀 발처럼 새겨진 깊은 주름이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간간히 눈에 띄는 백인들과 각 섬의 원주민들로 북적이는 공항은 장날의 시골 터미널을 연상케 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땀 냄새와 소음에 떠밀려 밖으로 나왔다. 따가운 햇살이 창처럼 눈에 쏘였다. 사방이 하얗게 질려 보였다. 빛 때문에 낮을 펼 수가 없었다. 선글라스를 끼었지만 열대의 강렬한 빛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건물 그늘에 쪼그려 앉았다. 곁에 선 헬레나가 나를 힐끗거렸다. 배낭에서 검은색 스카프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색맹에게 빛은 곤혹스러운 존재죠.”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치부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티내고 싶지도 않았다. 더구나 낯선 상대에게.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헬레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움이 될 거라며 내 머리에 스카프를 씌워줬다.

“섬에 의료 봉사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색맹을 식별할 수 있게 됐죠. 색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건 재앙일 거예요.”

색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렸다. 그들은 내가 보는 세계를 무채색, 흑백의 모노톤이라고 정의했다. 그들에게 무채색, 흑백의 모노톤은 색 없음과 동의어였다. 그들이 말하는 흑백이 어떤 빛깔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내가 보는 세계 또한 그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내가 본 세상 어디에도 모노톤은 없었다. 다만 세상이 규정해 놓은 색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었다. 깊고 다채로운 무채색의 섬세한 곁을 보지 못하는 건 정작 그들이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색이란 가시광선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뿐이었다. 가시광선에서 색을 발견한 뉴턴이 칠이라는 숫자에 미치지 않았더라면 무지개 색깔은 다르게 정의됐을 터였다. 색이 빠진 사물은 날 것 그대로였다.

헬레나에게 낯선 표정을 들킬까봐 얼른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다. 상대의 호의를 받아주는 것도 내 입장에선 배려라면 배려였다.

두 시간을 기다린 끝에 경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삼만 미터 상공에서 내려다 본 세상은 육지와 바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모호했다. 비행하는 동안 헬레나는 섬에 개척교회를 세울 때의 고생담과 원주민들을 개종시킨 사례를 늘어났다. 그녀는 말할 때마다 턱을 치켜드는 통에 오만한 인상을 풍겼다. 그녀는 다크 프로그램의 제작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눔의 공동체,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도가 건설하고자 했던 낙원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설교조로 말했다. 선배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나는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헬레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짧은 순간 경직됐다 이내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헬레나는 바다 한가운데 점처럼 박힌 섬을 가리키며 저곳이 핀지랩이라고 했다.

“핀지랩에는 마스크이 많아요.”

“마스크?”

선배가 반문했다.

“안 보인다, 라는 뜻의 토속어죠.”

“안 보인다고요?”

“전색맹들인데 대부분 시력도 나빠요. 희미하게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죠.”

섬은 두 개의 물음표가 맞붙은 것처럼 보였다. 헬레나가 마스크이 태어난 배경을 설명했다. 1775년 랭키에키 태풍이 섬을 휩쓸었는데 그 여파로 대부분의 원주민이 죽었다고 했다. 이십여 명의 생존자들의 근친상간으로 인구수는 늘어났지만 4세대 만에 마스크이 출현했다고 했다. 지금도 섬 인구의 삼분의 일이 마스크 보유자라고 덧붙였다.

“재앙이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낙원이 됐지만.”

3.

섬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 사진 그대로였다. 야자수가 울창한 숲, 드넓은 바다와 끝없는 해변. 하늘 높이 솟은 파파야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바다와 해안의 경계마저 무너진 곳.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시간 여행을 온 착각마저 들었다. 비행기 엔진 소리만이 현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가는 팔다리, 목이 늘어난 험령한 티셔츠 차림의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와 신기한 듯 우리를 에워쌌다.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아닌 호의가 가득 찬 표정이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곳이 정말 낙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검은 천을 둘러쓴 사내들과 햇볕에 낫을 찡그리는 애들의 표정이 눈에 띄었다. 말로만 듣던 색맹의 섬이 맞는 모양이었다.

선배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어깨에 맨 채 분주하게 움직였다. 섬의 풍경과 아이들을 앵글에 담느라 바빴다. 나와 원주민 몇 명이 촬영 장비와 헬레나가 가져온 구급약과 스캔 박스들, 옷가지와 생활필수품이 든 상자들을 날랐다. 헬레나가 젊은 원주민 남자와 반갑게 포옹했다. 젊은 남자의 이름은 벤이었다. 섬에 머무를 동안 길잡이가 되 줄 거라고 했다. 벤은 검은 천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안경 너머로 눈동자가 쉼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헬레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벤은 다른 원주민들과 어딘지 달라 보였다. 유창한 영어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옷차림이나 외모가 특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벤의 말투와 표정, 몸짓에서 묻어나는 질감이 달랐다. 선배가 헬레나와 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벤과 사내 두어 명이 촬영 장비와 캐리어를 챙겨 들고 앞장섰다. 원시림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이 새떼들처럼 재잘거리며 우리 뒤를 따라왔다. 몸피가 두터운 원주민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다 진기한 구경거리인 양 냇을 놓고 우릴 쳐다봤다. 카메라를 끈 선배가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다.

“섬이 온통 녹색천지야. 그린색 모노톤 같아.”

“알록달록 해 보이는데.”

“설마, 네 눈엔 그렇게 보여? 심지어 저기 바나나도 초록이야.”

실뻘처럼 가느다란 길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간간이 숲에 파묻힌 납작한 집들이 보였다. 나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던 햇살이 빛을 잃어갈 무렵 숲이 끝나고 거깃말처럼 큰 길이 나왔다. 아스팔트 포장길이였다. 곧이어 삼 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두 채와 교회가 보였다. 헬레나가 왼쪽 건물을 가리키며 관공서라고 했다. 우리는 그 옆 마을 회관 건물 이층에 묵을 거라고 했다. 건물 앞에는 원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헬레나는 익숙한 듯 그들과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눴다. 후덕한 인상의 원주민 남자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헬레나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으며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난음와키르, 섬의 왕이었다. 말이

왕이지 인심 좋은 동네 이장 같아보였다. 헬레나가 미리 촬영협조를 구했던 모양이었다. 왕을 따라 들어간 건물에는 진료소도 있었는데 헬레나 또래의 백인 남자가 일하고 있었다. 자원 봉사 나온 선교사라고 했다. 관청 일을 처리하는 남자 또한 외지인 선교사였다. 왕의 집 무실이라는 곳은 아파트 경비실만도 못해 보였다. 벽면은 페인트칠이 벗겨져 지저분했고 녹슨 철문은 삐걱거렸다. 우리가 묵을 곳은 원래 왕의 아들 둘이 쓰던 방인데 지금은 콤파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자리에 누웠다. 피곤한 몸과 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옷통을 벗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덜미에 둘렀다. 털털대는 선풍기 한 대로는 감당하기 힘든 열대의 더위였다. 자리에 누워있던 선배가 몸을 뒤척이다 일어나 모기장을 걷고 나왔다. 더위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투덜댔다. 맥주 한 잔 생각이 간절했다.

“선배, 헬레나라는 여자 꽤 영향력 있나봐.”

“방송국 담당자 말로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선교 사업을 총괄하고 있대. 그 여자 보고서에 따라 섬의 지원금이 달라지니까. 우리도 그 여자 도움 없이는 안 돼.”

4.

사람들이 두런대는 소리에 눈을 떴다. 고소한 음식 냄새와 나무 타는 향이 섞여 났다. 어둠의 농도가 열어지긴 했어도 밖은 아직 어두웠다. 한숨 자고 나니 정신이 한결 맑았다. 열대의 새벽 공기가 공금했다. 평상에 둘러앉아 바나나 이파리를 다듬던 원주민 여자들이 나를 보며 수줍게 웃었다. 어젯밤에는 못 보던 평상이었다. 평상 위에는 바나나와 코코넛, 빵나무 열매, 스왑이 수북했다. 원시 섬에 스왑 통조림. 괜히 입맛이 썩었다. 벤과 이야기를 나누던 헬레나가 손을 들어 아는 척을 했다. 섬사람들이 부지런하다는 내 말에 여기서 새벽과 저녁이 활동하기에 적당한 때라고 벤이 대답했다. 더위 때문이냐는 물음에 그는 색맹들에겐 어둠이 편하다는 걸 알지 않느냐고 나에게 반문했다. 피식 웃어버렸다. 언제 나왔는지 카메라를 손에 든 선배가 주위를 둘러보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냐고 물었다. 헬레나는 섬에 손님이 오면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식사를 한다고 했다.

선배가 다 같이 모여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장면을 촬영해 수확물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편집하면 좋겠다고 했다. 헬레나가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였다. 선배는 마을 회관이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보여주기엔 적절할 것 같다고 했지만 그녀는 교회에서 찍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헬레나는 선배에게 촬영장소와 인터뷰 할 사람들은 정해 났으니 촬영만 신경 쓰라고 했다. 선배가 물 한 컵을 단숨에 비운 뒤 카메라를 꺼버렸다.

“너무 하는 거 아냐?”

“고객 입맛에 맞춰야지 별수 있냐?”

한국어를 모르는 헬레나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우릴 번갈아 봤다. 선배가 음식이 맛깔스러워 보인다며 능청을 떨었다. 원주민들은 헬레나가 가져온 스왑만 먹었다. 화학조미료의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듯했다. 무채색 같은 토속 음식을 선호하는 건 오히려 외지인들이었다. 선배가 먹을 만하다며 구운 토란을 내 앞에 내밀었다. 태평양 섬에서 토란이라니 뜻밖이었다.

벤이 촬영 장비를 챙기는 걸 도와줬다. 헬레나와 선배가 앞서 걸었다. 벤은 불임성이 좋았다. 콤파에서 대학 다닐 때 영상 동아리 활동을 잠깐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전공이 뭐냐

고 물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고 했다. 다른 원주민들과 달라 보였던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선배가 벤을 불러 통역을 부탁했다. 맨발의 아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두막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여자는 그늘진 바닥에 앉아 뽕나무 열매를 다듬고 있었다. 집 안에서 남자가 나왔다. 빛에 극도의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오두막 안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헬레나는 남자에게 고도 근시용 안경을 선물했다. 갖고 온 스팸을 내놓자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여자를 뺀 가족 모두 마스크이었다. 아버지가 제일 심한 듯 했다. 헬레나는 마스크이라도 글을 배워야 한다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고 했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했다. 남자는 마스크이어서 특별히 살아가는데 불편한 건 없다고 했다. 그러곤 벤을 가리키며 대학까지 다녔지만 우리와 사는 게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나도 모르게 벤을 힐끗 쳐다봤다. 벤은 무감하게 통역만 할 뿐이었다. 헬레나는 아이들이 평생 섬에서 나무 열매나 따고 고기나 잡으면서 살면 좋겠냐고, 건문을 넓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애들 아버지는 헬레나가 준 안경을 쓰며 당신이 말하는 기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글을 배워 나쁠 건 없으니 학교에 보내겠다고 했다. 헬레나가 오두막을 나서며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가라고 당부했다.

헬레나가 물색해 둔 촬영지는 마스크 가족들이 사는 곳과 교회였다. 작은 섬이었지만 교회가 다섯 군데나 있었다. 납작한 원주민의 집과 달리 침탑에 십자가를 매단 교회는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낮고 완만한 섬의 곡선과 달리 높고 각진 교회 건물이 이물스러워 보였다. 마스크들이 사는 집은 엇비슷했다. 세간살이라곤 거의 없는 오두막에, 대부분 숲에서 열매를 채취하고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고 농사는 필요한 작물만 조금 짓는 정도였다. 벤의 말로는 대다수 섬 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에게 마스크는 시력이 나쁜 이웃일 뿐 색각 장애인이란 인식이 없었다. 마스크는 외지인들에게나 특별한 존재였다.

숙소에 돌아오면 선배는 촬영한 영상을 헬레나에게 보여주고 의논하느라 바빴다. 선배가 원주민들의 고유한 풍속이나 생활방식 등을 찍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는 반대했다. 철옹성 같은 그녀가 원하는 색깔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면 밖으로 나와 섬 이곳저곳을 서성였다. 그때마다 혼자 있는 벤을 보곤 했다. 그는 길잡이를 하거나 통역을 할 때의 쾌활하고 붙임성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침울한 표정에 무기력해 보였다.

5.

노크 소리가 났다. 편집 중이던 선배 대신 내가 문을 열었다. 헬레나였다. 선배가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권했지만 헬레나는 다음 촬영지로 안내하겠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온화한 미소를 띠며 부동의 자세로 서 있는 헬레나를 보곤 선배가 포기한 듯 나에게 장비를 챙기라고 눈짓했다.

“촬영지가 어딴니까? 어업 작업하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제작 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교회에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쪽은 촬영하고 편집하는 기술적인 부분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어요.”

감정을 읽어낼 수 없는 차분한 말투였다. 선배가 입을 다물었다. 헬레나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교장실이었다. 섬에 온 날 봤던 백인 선교사가 있었다. 그는 헬레나를 깎듯하게 맞이했다. 헬레나는 초등학교 과정만 운영되고 있다며 선교사가 관청 일과 함께 학교 행정 업무도 같이 처리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벤이 들어왔다. 선배가 선교사에게 교장이 누구냐고 물었다. 선교사 대신 헬레나가 교회라고 대답했다. 선배가 둘을 번갈아 보다 헬레나에게 단

독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가 찍자고 했다. 헬레나는 교정을 거닐며 인터뷰에 응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학교가 없었어요. 문맹률이 높았죠. 그들에겐 물질적인 원조보다 영혼의 구원이 시급했어요. 미개한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글을 가르쳤어요.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전색맹이 많고 교육시설이 전무한 섬이라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폰페이나 콤에 유학도 보내주죠. 대학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그녀는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벤도 그 중 하나였답니다, 라고 멘트를 이어갔다. 많이 해 본 숨씨였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당시 벤은 색각 장애인이었지만 영특한 아이였어요. 우린 벤의 장애를 위해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벤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뒤 능률한 청년이 되어 섬에 돌아왔답니다. 지금 벤은 섬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주민 복지를 위해 관청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일도 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꿈을 이룬 셈이죠. 아마 고향에서 일하니 보람도 클 것 같은데 어때요? 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를 구하듯 벤을 쳐다봤다. 벤은 멧쩍게 어깨를 으쓱했다.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NG 없이 단 번에 촬영이 끝났다. 헬레나가 못마땅한 얼굴로 벤에게 말했다.

“보람 있다고, 고맙다는 말도 덧붙이면 좋잖니. 인터뷰 다시 하렴.”

“섬에서 일자리도 못 얻었는데...보람 운운하는 건...싫습니다.”

그래서. 헬레나가 신경질적으로 벤을 쏘아봤다. 벤이 인상을 썼다. 여느 때와 달랐다. 선배가 얼른 헬레나에게 학생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벤에게 우리를 교실로 안내하라고 한 뒤 선교사와 함께 교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상전이 따로 없네. 쟁쟁. 선배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난간에 걸터앉아 혼잣말을 했다.

벤이 수업 중인 교실로 우릴 안내했다. 세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 두꺼운 안경을 낀 남녀 학생이 책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 설핏 보면 책에 고개를 파묻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교실로 들어서자 낯선 방문객의 출현에 책을 읽어주던 교사와 아이들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다. 벤이 선생님에게 촬영 협조를 구했다. 촬영을 위해 조명을 켜다. 안경 낀 아이들이 손으로 눈을 가리며 낮을 찡그렸다. 선배가 인터뷰를 위해 학생들 앞에 앉았다. 벤이 실눈을 가늘게 뜨고 눈을 찡긋거리는 남녀 학생은 남매 사이라고 했다. 색맹이라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매는 아무렇지 않다고 선선히 대답했다. 선배가 선생님에게 물었다.

“마스쿤은 시력이 거의 안 나온다는데 책은 어떻게 봅니까?”

“한 번 들으면 외워버려요.”

설마. 선배가 웃었다. 벤이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금 선생님이 읽어 주신 책을 외워보라고 했다. 아이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선배는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나에겐 익숙한 광경이었다.

학창 시절 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잇감이었다. 애들은 걸핏하면 나에게 색깔을 알아맞혀보라면서 질문을 해댔다. 쓸 데 없는 호기심과 차별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색을 모조리 외워버렸다. 덕분에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땐 내가 색맹이라는 걸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 미술 시간에 그 일만 없었더라면 고등학교 생활은 나름 평온했을 터였다. 서양화를 전공한 미술 선생은 인상파 화가 모네를 좋아했다. 틈 날 때마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모네의 작품을 볼 때의 감동을 말하곤 했다. 수행평가로 제시한 그림 역시 모네의 작품이었다. ‘루앙 대성당’이었다. 삼십여 점 모두 성당의 정문을 그린 작품으로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대상의 모습을 잘 포착한 걸작이라고 했다. 날씨와 빛의 조건에 따라 색깔과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발표하라고 했다. 내 이름이 맨 먼저 호명됐다. 한 사람만 먼저 발표했었다라면 대성당의 색을 모두 외웠을 터였다. 선생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색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주눅 든 얼굴로 쭈뼛거리며 서 있는 내게 선생이 재차 다그쳤다. 나는 ‘대성당 자체’라고 대답해버렸다. 미술 선생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각각의 색을 말해보라고 다그쳤다. 같은 색이라고 대답했다.

“이 새끼야 장난해? 너 색맹이냐?”

“네.”

아이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6.

촬영은 순조롭게 끝났다. 나는 터덜터덜 교정을 나서는 벤을 뒤쫓아 갔다. 나도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고 그에게 말을 붙였다. 벤이 당신은 희망이 있겠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했다. 그의 말이 선뜻 이해가 안됐다. 왜냐고 물었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섬의 현실이 생각과 너무 달랐다고 했다. 진료소와 학교, 관공서라고 해봐야 필요한 인원은 다섯 명도 안 되는데, 그나마 외지인 선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이 이곳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고 했다. 벤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인 셈이었다. 섬에선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도 없었다. 고민 끝에 다시 섬을 떠났지만 폰페이, 괌 어디에서도 자리 잡지 못했다. 마스크, 색깔 장애인이 그에게 붙여진 꼬리표였다. 나도 취직하려고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벤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으냐고 묻기에 글썽, 라고 대답했다. 물끄러미 그를 쳐다봤다. 떠날 수도 남을 수도 없는, 어느 세계에도 편입될 수 없는 경계에 선 자의 우울과 외로움이 묻어났다. 헤아릴 수 없이 먼 거리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었다.

전색맹. 흑백 사진작가가 꿈이었던 내가 면접 때마다 고배를 마셔야했던 이유였다. 공모전 수상 경력이나 작품집 따위는 쓸모없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전업 작가의 길을 걷더라도 삼시세끼는 해결해야만 했다. 어떤 조건이라도 일하겠다며 구걸하듯 여러 곳을 기웃거리봤지만 소용없었다. 애당초 선택지가 없는 내게 공무원 시험은 비상구 같은 거였다. 직업과 꿈을 혼동할 나이는 아니었다. 고향에 돌아가 봐야 전색맹을 물려준 엄마의 주름 깊은 한숨뿐이었다.

나는 벤에게 섬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다고 했다. 벤이 내일 해 뜨기 전에 나올 수 있겠냐고 묻기에 그러겠다고 답했다.

벤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따라 숲으로 갔다. 숲의 공기는 낮설고도 익숙했다. 식물들이 내뿜는 산소와 열대 특유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섞인 냄새였다. 화선지에 번진 먹물 같은 풍경들이 펼쳐졌다. 농담이 다른 다채로운 질감의 식물군들이었다. 숲 가운데 낮고 완만한 집들이 띄엄띄엄 숨은 그림처럼 놓여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 안밖을 오가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섬은 벌써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하루를 시작하는 활기가 느껴졌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땅에서 뭔가를 캐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벤에게 물어보니 토란을 수확한다고 했다. 크기와 맛은 조금 다르지만 내 고향

에서도 토란을 재배한다고 했더니 벤이 놀라워했다. 그는 나에게 토란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나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대답했다. 벤이 스펀이야기를 늘어났다. 원주민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먹거리들보다 스펀을 선호한다며 없어서 못 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판매에 가보니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안 먹더라고 했다. 호주에 교류 학생 신분으로 잠깐 갔는데 그곳에서도 가공식품인 스펀은 값싼 식품이어서 놀랐다고 했다. 오년 동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섬에 돌아와 보니 자신이 떠날 때와 달리 뚱뚱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지금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했다. 눈앞에 돼지 두 마리가 지나갔다. 사내 둘이 그물을 둘러매고 돼지를 쫓았다. 벤이 그들과 아는 척을 해 인사를 나눴다. 섬에선 돼지를 방목하는데, 돼지를 기르는 집은 부자라고 했다. 부자라는 말이 설겅거렸다. 부자? 라고 반문하자 벤이 씩씩하게 말했다.

“이곳도 돈 벌러 나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애들은 섬을 떠나고 싶어 하죠. 몇 년 전에 오백여 명 되던 인구가 지금은 삼분의 일로 줄었어요.”

“사람들 표정이 밝아서 낙원인 줄 알았는데.”

낙원이라는 말에 벤이 피식 웃었다. 벤이 바나나 이파리로 엮어 만든 지붕이 갈라져 내려앉을 것 같은 작고 허름한 오두막 앞에 멈춰 섰다.

“섬의 진짜 모습이 보고 싶다고 했죠. 들어와요.”

벤을 따라 들어간 오두막 안은 동굴 같았다. 빛이 차단된 어둠 속에서 여자가 카펫을 짜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여자가 벤을 향해 두 팔을 내밀었다. 여자가 벤을 살뜰히 안으며 등을 다독였다. 벤은 여자를 돌아가신 엄마 친구라며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펫을 짜는 마스쿤이라고 내게 소개했다. 여자의 미소는 친절하고 따뜻했다. 낡은 외관과 달리 빛이 차단된 실내는 아늑했다. 생선을 끓인 수프와 구운 토란을 내왔다. 담백하고 부드러웠다. 토란에선 감자 맛이 났다. 끈적이지 않아서 먹을 만 했다. 엄마가 끓여주던 토란 탕 생각이 났다. 입 안에서 미끄덩거리며 질척대던 식감이 싫기만 했던 토란.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카펫을 짜다. 어둠에 길들여진 능숙한 솜씨였다. 지금까지 보던 벤과 달리 편안해 보였다. 그녀가 짠 카펫의 문양은 열대 식물에서 채취한 질감이 곁을 이루고 있었다. 섬세한 농도가 빚어내는 물결들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물기 마른 앙상한 손이 짜 올린 세계는 경이로웠다. 어둠에 익숙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마스쿤이 아니라면 결코 볼 수 없는 색채였다. 카펫을 짜고 있는 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엄마 생각이 나 울컥, 한 기분이 들었다. 내 표정이 이상했는지 벤이 날 봤다. 카펫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다. 여자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텐데도 내게 카펫을 선물로 줬다.

오두막 밖으로 나왔을 땐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카펫의 섬세한 문양들이 빛을 받은 순간 하얗게 무화돼 버렸다. 여자의 집 곁에 무덤이 있었다. 남편의 무덤이라고 했다. 섬에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죽으면 집 옆에 묻는다고 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묵묵히 공존하는 땅이었다. 무덤가에 처진 빨랫줄 같은 끈에 천들이 영혼처럼 매달려 있었다. 여자는 남편의 무덤을 보며 너희 엄마도 이 사람처럼 편안히 쉬고 있을 거라고 벤에게 말했다. 여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벤이 보여줄 게 있다며 나를 숲 속 깊숙이 데려갔다. 풀숲을 헤치며 걸던 그가 말했다.

“마스쿤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태풍 때문이라면서요?”

“섬에 내려온 전설에는 악마가 들러붙은 외지인들이 들어와 병균을 퍼트려서 마스쿤이 태

어났어요.”

“외지인?”

“독일, 미국, 에스파냐, 일본 등 다양해요.”

섬사람들에겐 외지인이 태풍인 셈이었다. 돌무더기가 쌓인 곳 앞에 벤이 멈춰 섰다. 깃발이 돌레에 치렁치렁하게 처져 있었다.

“핵폐기물을 묻어둔 곳이에요. 냉전시대 미국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에서 비밀리에 핵 실험을 했어요. 몇몇 섬들은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섬도 그렇고 폰페이도 그렇고 태평양 연안의 섬 중에는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와 친구 분 남편도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했었죠.”

나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외지인들이 재앙을 몰고 온 셈이었다. 태평양 연안의 섬에 교회가 번성한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종교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진 못했을 터였다. 냉전시대가 활취고 간 흔적이 이런 곳까지 남아있다는 게 놀랍기만 했다.

숲에서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경쾌하면서도 구슬픈 선율이었다.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럿이 합창을 하는 듯도 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갔다. 선명해지는 소리와 달리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숲 전체가 합창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7.

“야, 일어나. 카펫 짚으러 가자.”

“그게 뭔데?”

“밤낚시. 마스쿤들은 야행성이잖아. 헬레나 몰래 가는 거야.”

“낚시하자고?”

“찍을 게 있어. 오늘 밤 조업 나가는 선주한테 달려 쥐어주고 부탁해놨어.”

“뭘 찍을 건데.”

“사는 모습.”

“선배, 섬에 핵폐기물을 묻은 곳이 있더라고.”

“그래? 일단 가면서 이야기 하자.”

해안에 도착했을 땐 모두들 승선을 마치고 우릴 기다리는 중이었다. 벤이 반갑게 우릴 맞았다. 어부들은 대부분 마스쿤이거나 늙은 사내들이었다. 배가 물결 따라 출렁였다. 날치들이 수면 위로 솟구쳤다가 침병 물속에 꽂혔다. 날치 떼들이 바다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거둬 올렸다. 어종을 알 수 없는 열대어와 다랑어들로 그물 안은 풍요로웠다. 어부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물을 던지고 거둬 올리기를 반복했다. 허리를 난간에 걸쳐두고 몸을 수그린 채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바다에 빠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물고기와 인간의 사투였다. 배 안에 포획물들은 팔딱거리며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동안 한쪽에선 잡힌 생선을 분류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보고만 있어도 배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선배는 배에 올라 탄 순간부터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배 안에서 몸을 가누기 힘들 때에도 촬영에만 몰두했다. 나는 문득 선배가 찍으려는 영상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배가 해안가에 닿았을 땐 밤샘 조업을 한 탓에 모두들 기진맥진해 있었다.

낮에는 한가롭던 해안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섬 주민들 대부분이 나와 있는 듯 보였다. 배를 본 사내 아이들이 올라와 망태기에 생선을 담아 날랐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해안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잡아 광주리에 담고 있었다. 광주리 안을 들여다봤다. 어른 주먹 크기만 한 해삼이었다. 그들은 수확물을 가지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선배가 선주에게 고기잡이배가 만선으로 돌아올 때면 주민들이 모두 모여 나눠먹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통역을 하던 벤이 못마땅한 얼굴로 섬사람들의 일상을 촬영하려는 거 아니었냐고 선배에게 따지듯 물었다. 선배가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는 데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다. 그건 섬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아니라고 벤이 대답했다. 그는 다랑어나 해삼은 수출 물량도 부족해서 뱃사람들도 맛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랑어나 값나가는 생선은 말레이반도,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한다고 했다. 환경단체 같은 데선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지 말라는 경고 하지만 요샌 이곳 사람들도 돈이 필요한 곳이 많아 바람이 부는 날도 고깃배를 띄우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선배가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달리를 꺼내 보이며 인터뷰에 응하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했다. 눈치를 보던 선주와 뱃사람 몇 명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나섰다.

“뭐 하는 거죠?”

양갈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헬레나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촬영해도 되는 거냐고 했다. 한국의 방송국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선배가 헬레나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대거리를 했다. 원주민들이 선배와 헬레나 주위로 모여들었다. 난음와키르가 무슨 일이나며 나왔다. 헬레나는 할 말이 있다며 왕에게 짐부실로 갈 것을 권했다. 그들이 들어간 뒤 선배가 촬영을 마무리하자고 서둘렀지만 벤은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며 돌아가 버렸다. 통역 없이 선배가 원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찍는 동안 왕이 다시 왔다. 그는 이 시간 이후 섬에서 촬영 일체를 불허하겠다고 했다. 일방적인 통보에 기가 막힌 선배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항의했지만 그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곤 가 버렸다. 했다. 숙소로 돌아온 선배가 팔짱을 낀 채 침대에 걸터앉았다. 어쩔 셈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생각 많은 얼굴로 한참 동안 앉아 있던 선배가 입을 열었다.

“내가 말했던 돌무더기, 내일 찍으러 가자.”

8.

섬에서의 마지막 날. 동이 뜨기 전 해변으로 나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아름답고 섬세한 섬의 고유한 빛깔을 간직하고 싶었다. 지평선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고정시켰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망원경으로 별을 봤다. 새벽 동이 터왔다.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남쪽물고기자리의 일등성 포말하우트의 아름다운 모습은 형용키 어려웠다. 별을 보고 있자니 카메라 셔터를 누를 생각마저도 들지 않았다. 일출을 보고 숙소로 돌아와 보니 선배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국 가서 마무리하지 그래.”

“개인적인 거야. 가난하지만 행복한 낙원의 섬, 자본주의의 대안을 보다. 제목 어때? 쓸 만해?”

“뭔 소리야?”

“경력직 프로듀서 응모 때 내려고. 카펫 하고 몇 장면 적당히 섞어서 편집하면 괜찮은 거 하나 건질 것 같아서 말이야.”

“낙원은 무슨.”

“그건 그렇고 너 얼른 파일 열어봐. 헬레나에게 보여줄 영상은 대충 마무리해야 돼. 몇 군데 손봐야겠더라. 내가 체크해 봤어. 점심 때 미팅 잡혔어. 그 전까지 끝내.”

파일을 열었다. 다큐멘터리 속 핀지랩은 그녀가 원하는 색으로 완벽하게 채색되어 있었다. 언제 찍었는지 화면 속 벤은 대학물을 먹고 온 세련된 원주민. 섬을 위해 보람된 인생을 살고 있는 활기찬 젊은이었다. 그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삶을 개척한 새로운 세대의 표상이 되어 있었다. 헬레나와 벤은 다정한 모자 사이처럼 편집돼 있었다. 마음 둘 곳 없어 섬에서 외톨이로 방황하던 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모습이 서글프도록 낯설었다. 선교활동이 돋보일 수 있도록 몇 군데를 잘라내 재배치했다. 보정을 하며 자막을 수정하다 작업을 멈췄다.

“자막이 잘못됐는데.”

“어디가?”

“우리의 서낭당과 비슷한 토속신앙이라고 쓰여 있잖아.”

선배가 화면을 힐끗 보더니 아 그거. 라며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대로 가면 돼. 잘못 된 거 아니야. 라고 심드렁하게 말했다. 무슨 뜻이야? 선배는 귀찮다는 듯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네 덕분에 헬레나 하고 단판을 지었다. 돌무더기 영상 보여주면서 핵폐기물을 은폐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했더니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건 아니잖아. 진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진실? 네가 돌무더기 안에 핵폐기물이 들어있는 거 봤어. 너는 섬에 대해 뭘 아는데. 태평양 한 가운데 점처럼 박힌 섬에, 돌무더기 안에 뭐가 들어있든 알게 뭐야. 돌무더기가 섬의 민속신앙이면 어쩔고 아니면 어떡냐. 우리한테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어쨌거나 기독교 단체가 가난한 섬에 지원금 보내주고 보살펴 주잖아. 그게 진실이야.”

“영화 찍어. 아무리 의뢰인 입맛에 맞춘다곤 하지만 너무 심하잖아. 다큐잖아 적어도 진실을 왜곡해선 안 되는 거 아닌가.”

“정신 차려. 다큐도 결국은 판타지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찍는 게 다큐야.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낙원이야.”

우리를 태울 경비행기가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기다리고 있었다. 헬레나와 선배는 각자 원하는 색으로 칠해진 섬의 영상을 손에 넣고 비행기에 올랐다. 무채색의 섬은 그들에 의해 다른 색깔로 채색된 채 세상에 나갈 터였다. 얼마 후면 색맹의 섬은 낙원을 꿈꾸는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에 오를 지도 모를 일이었다. 벤이 손을 흔들며 웃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처연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섬의 마지막 모습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다. 원주민들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프레임에 잡혔다. 섬이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끝>